

“봄날 꽃같은 인간의 감성 그렸죠”

목포 출신 김지수 작가

3년간 문예지 발표 작품 엮어

소설집 ‘명자꽃이 피었다’ 펴내

인생의 빛과 그림자 담아

목포 출신 김지수 <사진>작가가 다섯 번째 소설집 ‘명자꽃이 피었다’ (푸른사상)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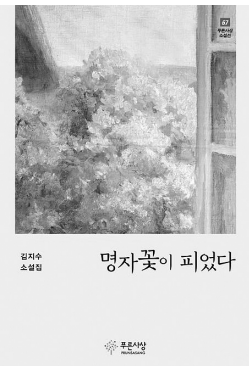
작가는 지난 3년 여에 걸쳐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을 모아 이번 책을 발간했다. 한편, 한편 정성껏 갈 무리한 소설들은 작가적 역량을 가늠하게 할 만큼 완성도가 높다.

이번 작품집에 대해 김 작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말할 수 없는 빛과 그림자를 담고 있다”며 “작은 등을 비추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고 출간 배경을 전했다.

표제작 ‘명자꽃이 피었다’는 밝고 따스한 작품이다. 산당화로도 불리는 이 꽃은 작품에서는 봄날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들의 불안 감성을 상징한다.

작가는 그동안 사람들의 삶의 그늘을 비추는 작품을 쓰다 보니 ‘너무 슬프고 애잔하다’는 독자들이 평이 많았다고 했다. 이번 표제작은 밝은 기운을 주는 소설을 상징하고 창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가로서의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밝고 긍정적인 작품을 써보고 싶었다”며 “다분히 그런 의도를 갖고 쓴 소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자꽃이 피는 봄에 책을 발간하게 돼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졌다”며 “밝고 환한 기운, 인간에 대한 따뜻한 긍정성을 독자들이 많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소설 속 주인공 명주는 한때는 교사였지만 학부모, 학생들과의 충돌로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또한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다. 우울하게 지내던 중 시골의 명자 고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고모는 요양원에는 한사코 가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린다. 자식이 없는 명자 고모는 명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어린 시절 인기가 많았던 명주가 시골에 내려오자, 동네 노총각들의 가슴에는 바람이 든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온 명주는 “동화 속 공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각인돼 있다. 명주의 낙향으로 시골마을은 들썩들썩하고 봄바람이 들면서 모처럼 사람 사는 활기가 돈다.

표제작 외에도 ‘맨발 걷기’, ‘저기 한 점 꽃잎이’, ‘목포역에 내리다’ 등 작품들도 치밀한 구성과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직조돼 있다. 무엇보다 소설 기저에 드리워진 인간에 대한 깊이면서도 따스한 시선이 돋보인다. 모범답안처럼 덜하거나 더하지 않는, 단아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작품들이 주는 마력이다.

김 작가는 “앞으로도 개인들의 삶에 드리워진 소소한 아픔을 형상화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긍정하고 아우르는 소설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문학평론가(숭실대 교수)는 “김지수의 ‘명자꽃이 피었다’는 문학의 경계에 서 있는 작품집이다. 그것은 예술성의 완성을 통해 경계에 도달한 모습인 동시에 삶의 구경을 탐구하는 문학 너머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한편 김 작가는 ‘한국문학’ 신인상, 동아일보 신춘문에 중편으로 등단했으며 한국소설 작가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크로마하프를 켜는 여자’, ‘고독한 동반’, ‘푸른 그네’, 장편소설 ‘목포 아리랑’, ‘나는 흐르고 싶다’ 등을 펴냈으며 광주에서 ‘시누대’ 동인 활동을 펼쳤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월 문학, 시대 초월해야 세계 문학으로 확장” ‘전남여고문학’ 11호 나왔다

오월문예연구소 오늘 2차 포럼

“5월 문학의 세계성은 그것이 오히려 5월이라는 이름을 넘어설 때 드러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희석 평론가는 오월문예연구소(대표 나종영)가 27일 진행하는 2차 포럼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서 오월문학’을 주제로 한 발제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오월문학이 지역과 시대의 한계를 초월해 세계문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평론가는 “5월문학의 세계성에 관하여-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5월 문학이 단지 광주 역사의 한 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윤리성과 인간 존엄의 문제를 다루는 세계문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월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시인인 박효환 전 한국문학번역원장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과 오월 문학의 가능성 그리고 세계문학축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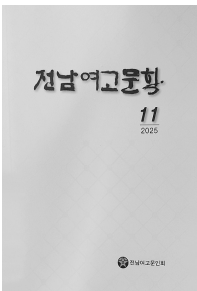
유희석 평론가

박효환 시인

서 광 전 원장은 ‘소년이 온다’ 번역 출간과 수용 양상을 통해 오월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이 이어지길 바란다.

광 전 원장은 “세계문학은 작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번역, 문화정책, 국제 네트워크의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오월문예연구소는 지난해 ‘지역과 문학의 윤리’를 주제로 한 1차 포럼에서 5·18 이후 세대의 문학의 윤리적 좌표를 살펴본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그 연장선에서 오월 문학을 세계적 공감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시민 누구나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여고문학회(회장 이미란)가 발간하는 문집 ‘전남여고문학’ 11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도 시를 비롯해 시조, 동화,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이 실렸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7회 전남

여고교기념백일장 수상 작품도 수록돼 있다.

먼저 시 부문은 김소정, 김수목, 김예순, 김정희, 김화연, 김화정, 박미경, 박영자, 신옥비, 오혜정, 이상임, 임미유, 장문자, 장수라, 전숙, 최선욱, 홍영숙, 황경진 시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시조는 권현영, 이강요 시인의 작품이 동화는 김옥에 동화작가의 동화가 실렸다. 수필은 김옥레, 김정자, 김형미, 문예자, 박남, 선수원, 송중숙, 양혜원, 이미란, 이신자, 정란숙, 조성자, 조혜숙, 최은정, 하순명의 작품이 소설은 민금애, 서용좌 소설이 독자들을 만난다. 개교기념백일장 대상은 3학년 1반 박나영이 ‘휴이’라는 산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피아노

<심사위원>
박규연 (군산대 교수)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
선수정 (경상대 교수)
이성은 (전남과학대 교수)
조성경 (전남과학대 교수)

◇ 피아노 초등부 3,4학년

▲ 최고상
52 김재윤 (선운초3)
▲ 금상
13 임수아 (조봉초4)
24 송준우 (운천초3)
26 정소율 (진제초4)
96 양서준 (전주인봉초4)
109 김하임 (겨자씨크리스찬스쿨4)
111 손호정 (광양마동초4)
119 허유정 (광양마동초4)
129 양가인 (광양마동초4)
152 김도윤 (만호초4)
165 김성해 (담양동초4)
193 이지윤 (목포이로초4)
195 박수호 (목포영산초4)
204 정세하 (순천신대초4)
▲ 은상
1 김서현 (태봉초4)
17 한승민 (경양초4)
20 서민지 (불로초3)
23 김태준 (주월초4)
25 임제인 (일곡초4)
28 한서하 (장덕초4)
34 장유민 (태봉초4)
36 김하람 (운천초3)
37 전혜울 (조봉초4)
43 민정인 (치평초3)

50 한승수 (라온초4)
57 박지민 (라온초4)
60 박제이 (광림초4)
62 최이안 (신창초4)
66 박제하 (광림초4)
76 방지윤 (불로초4)
79 송연서 (구례북초3)
85 이현서 (평동초4)
89 이은우 (광주교대목포부설초4)
91 김도윤 (목포영산초3)
118 김지아 (한아름초4)
120 서나은 (화개초4)
132 정가은 (연제초4)
144 박준수 (목포향도초4)
148 김보라 (불로초4)
150 안서현 (장산초4)
158 김하진 (광주송원초3)
166 최윤우 (여수송현초3)
179 임승우 (지한초3)
182 이재율 (한울초4)
196 박서현 (불로초4)
202 이슬아 (순천신대초4)
207 김루아 (순천신대초4)
208 문지인 (전주서신초4)
213 이승후 (불로초4)
▲ 동상
5 박이안 (조봉초3)
11 안재이 (유덕초4)
19 윤라희 (삼각초4)
40 이서하 (건국초3)
44 신다은 (광주효덕초3)
45 백서아 (수완초3)
51 박예은 (주월초4)
54 이화민 (불로초4)
55 장은재 (진원초4)
58 오승현 (송정초3)

61 나세현 (광주계림초4)
64 이소미 (광주운암초3)
71 김태휴 (문정초4)
75 민지웅 (전주화산초4)
83 전가현 (불로초3)
84 박세령 (큰별초4)
86 박건홍 (구례북초3)
93 이건준 (진원초4)
95 김유하 (강진중앙초4)
103 김도연 (광주계림초3)
110 박범진 (문우초3)
116 김태민 (대촌중앙초3)
127 김서현 (광주중흥초4)
128 정다인 (불로초4)
130 박시진 (광주동초3)
135 정세인 (산정초3)
136 기예은 (문정초4)
137 한소윤 (한아름초3)
151 윤서연 (불로초4)
163 윤하준 (삼례시오초4)
164 김윤슬 (금부초3)
183 최연서 (불로초4)
184 선라원 (연제초4)
186 오서연 (금부초4)
189 양아윤 (곡성중앙초4)
190 조은우 (불로초4)
191 윤예지 (태봉초4)
199 김은지 (태봉초4)
201 노윤재 (전주효천초4)
203 박지아 (불로초4)
205 유민호 (태봉초4)
212 안소윤 (전주서신초4)
214 성도윤 (광주효동초4)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여, 너의 꿈을 펼쳐라

전남예총, 6월 10일까지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모집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남예총)는 ‘2025 제4회 전남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전남예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예술제는 전남도 주최, 전남예총 주관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은 국악·댄스·순수무용·보컬·밴드·음악 등 6개 분야에서 열린 경연을 펼치게 된다. 참가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이다. 예선은 6월 21~22일 이틀간 열리고, 본선은 6월 28일 영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히 본선 무대에는 전남도 대상 수상팀을 비롯해 해군 군악대, 인기 래퍼 비와이, 보컬리스트 유성은의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소통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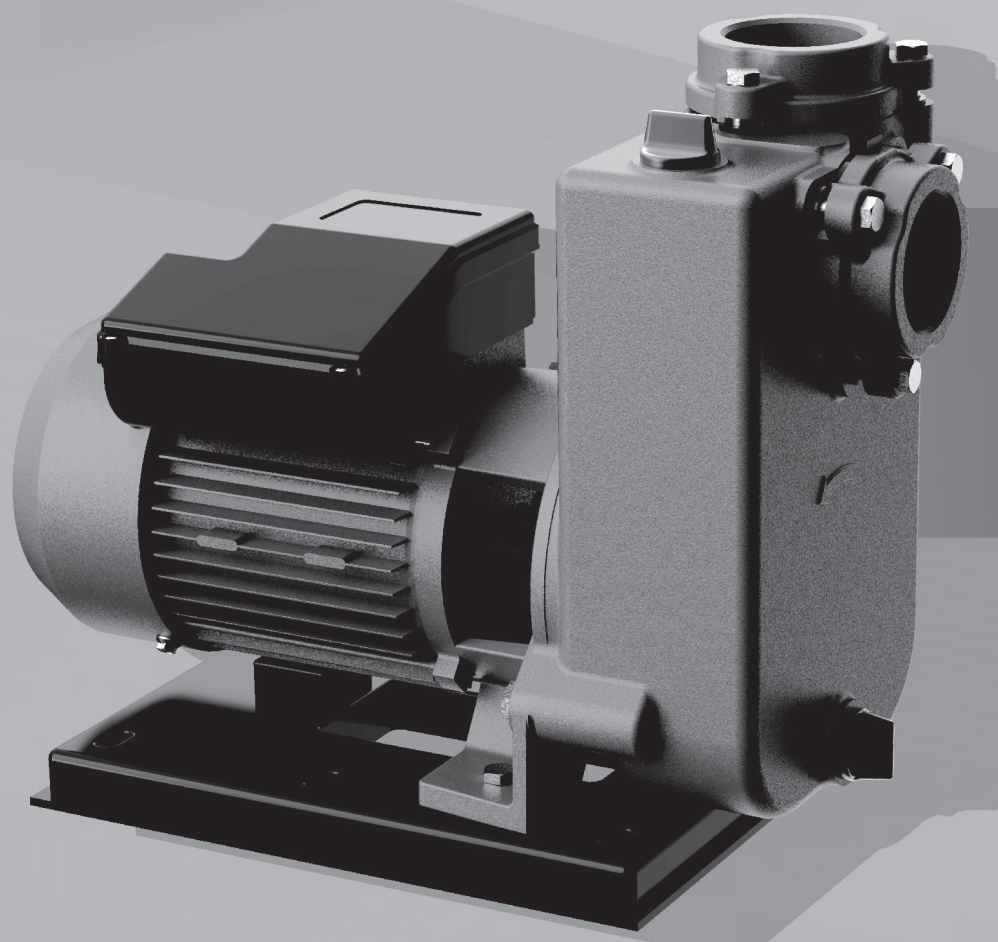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현장에는 해군 홍보부스, 전남도 국제수목비엔날레, 전남도교육청의 예술계 고등학교 홍보 부스 등도 운영되며,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진로 상담 및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웹툰전시회’도 마련된다. 6월 5일부터 19일까지 목포 유달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K-웹툰의 미래를 만들어갈 50여 명의 청소년 작가들이 참여해 신선한 시선의 작품을 선보인다.

임점호 전남예총 회장은 “K-컬처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끄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예술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